

치 사

풍성함을 함께 나누어 훈훈함을 더하는 절기와 같이 제13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전을 통해, 저마다의 수확을 함께 나누는 것은 모두에게 큰 의미를 갖게 합니다. 공덕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천년 역사에 빛나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부단히 정진하는 전통문화재 조각회의 작가들이 대부분 우리 종단에서 개최하는 불교미술대전을 통하여 등용되었기에 그 결실과 보람이 배가되고 있습니다.

불교미술은 우리 선조들의 문화적 정서와 생활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민족의 유산이며 전통예술입니다. 그러나 유구한 전통예술이 아무리 빼어나고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오늘날 후손들에게 올곧게 전수하지 못한다면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소중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예술의 생명성을 상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통문화재조각회 여러분들이 드높은 장인정신으로 전통문화계승에 진력하는 모습은 많은 불자들에게 향기롭게 회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취와 공덕은 불교미술의 계승과 발전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기에 거듭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쯁록 오늘 조각회전이 열릴 수 있도록, 오랜시간 준비하신 대한민국 전통문화재조각회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7(2013)년10월2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